

일제하 예산군 시랑리 청년들의 농촌개발운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Youth's Rural Rehabilitation Movement in Shiryang-ri, Yesan under Japanese Rule

김명희* · 최병익** · 윤준상***

Myung Hee Kim · Pyeong Ik Choe · Jun Sang Yoon

Abstract

The youth's rural rehabilitation movement started the crusade against illiteracy and poverty with all young educated elites including Whang Jongjin (a student of Yesan Public Agricultural High School) of the village, Shiryang-ri, Deoksan-myon, Yesan-gun. Among others, Patriot Youn (1908-1932) initiated the movement.

The main projects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were the Evening School (1926), Reading Club, the Woljin Hoe (1929), Puheung Won (1928), a Mutual Financing Association for Swine Farming, Sweet Potato Cultivation, Cooperative Planting, the Shuam Sports Club and Consumer's Cooperative Society. The idea in Nongmindokbon (Famer's Text, 1927) is based on liberalism, equality, independence, a pioneer and cooperative spirit or realization of a physiocratical Utopia.

Most references about Patriot Youn are concerned with his heroic deed in Shanghai, however the youth in Shinyang-Ri are typical agricultural extension workers or in other words, a forerunner of Saemaul Undong.

*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e-mail: mykim@kongju.ac.kr

**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e-mail: pichoe@kongju.ac.kr

***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교신처자 e-mail: jsyoon@kongju.ac.kr

주요어(Key words) : 농촌부흥운동(Rural rehabilitation movement),
농촌지도(Agricultural Extension),
농민독본(Nongmindokbon), 시랑리(Shiryang-ri)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어떤 극적 사건과 관련된 경우, 그 대상의 인성은 흔히 왜곡되기 쉽다. 윤봉길의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마찬가지다. 시랑리의 청년들이 윤의사와 함께 1926년부터 1930까지 만 4년에 걸쳐 농촌지도활동을 벌였던 사실도 거의 홍코우공원의 영웅상에 의해 윤의사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윤의사에 관하여 수십편의 문헌이 그의 지엽적인 면모는 소개하면서도 그가 향리에서 벌인 일련의 농촌부흥운동과 그 동지들에 대하여 간과한 점은 그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키기 쉽다.

일제하에서 이루어진 윤의사와 그 동지들에 의한 농촌부흥운동을 고찰해 볼 때 오늘날의 농촌지도사업 또는 농촌개발운동과 많은 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시랑리 청년들의 농촌부흥운동에 관한 자료가 활동명칭과 연도외에는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바른 평가에 제약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일제하 시랑리의 실태와 아울러 윤의사와 함께 농촌부흥운동에 동참했던 청년지도자들을 함께 구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로 부터의 범국민적 농촌개발운동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새마을운동에 관하여 양산된 연구가 시대적으로 1970년대 이후에 국한된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윤봉길의사의 농촌부흥운동을 오늘날의 농촌개발사업의 시각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제하 시랑리 청년들이 윤봉길의사와 함께 벌였던 농촌부흥운동의 내용을 자생적인 농촌개발운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20년대 한국농촌 및 시랑리의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농촌부흥운동의 사상적 배경도출을 위한 농민독본의 교육목표를 분석한다.

셋째, 농촌부흥운동의 내용과 농촌부흥운동에 참여한 시랑리 청년들의 역할을 구명한다.

1.3.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주로 일제하의 한국농촌 관련문헌과 윤봉길의사 관련문헌 및 월진회의 자료 및 예산공립농업학교 학적부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당시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진회 임원들과의 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2. 윤봉길의사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2.1. 1920년대 한국농촌의 빈곤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투자를 한국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 왜곡시키는 견해(Don R. Hoy. 1978)가 얼마나 그릇된 논리인가는 한일합병 이후에 한국민의 생활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고찰하는 것으로 자명해진다.

1910년에서 1918년에 걸친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일제의 농지약탈은 한반도의 자영농민으로 하여금 일인의 소작농으로 전락시켰으며 그 결과 1921년에는 200정보 이상의 대규모 토지 가운데 70% 이상을 일인이 점하게 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국농민의 경제적 몰락은 1920년대 말 자소작과 순소작을 합하여 전농가의 80%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타났다(Takeo Suzuki. 1942). E. S. Brunner의 보고서에도 1915년부터 1925년까지 10년 사이에 자작농이 11% 감소한 반면 소작농은 20%나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한국농민은 영속적인 농노의 처지로 영락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의 전망도 거의 절망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토지의 편제로 인한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격차는 지세고액납세자 가운데 일인이 차지한 수를 보아도 자명해지는데 1915년과 1925년의 토지 소유자, 지세 및 납세자현황표에서 500원 이상 고액납세자에는 일본인 수가 한국인수보다 2배 이상이나 되는 한편 시가지세 납세자 현황을 보면 그 격차가 더욱 심하고 이런 현상은 1915년보다 1925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국사편찬위원회, 1970).

도탄에 빠진 한국농민의 참상을 고을의 소작료와 소작료전납제, 보증금등이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데, 당시의 소작료율이 정조 25~90%, 타조 30~75%, 집조 30~55%로서 평균 50%에 달했으며 소작

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당은 생산량의 17% 정도밖에 안되었다(조동걸, 1976: 102). 이와 같은 수탈은 농민을 포함한 한국인 전체에게 가해졌으며 절대빈곤상태의 농민층으로 하여금 한반도 전역에서 소작쟁의를 유발시켰고 이는 3·1운동과 그 이후의 농민운동발전의 직접적인 한 요인이 되었다.

일제에 의한 한국인의 경제적 불이익은 비단 농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동일직종의 노동에서부터 단순기능공에 이르기까지 임금의 격차가 일반화되었고 이와같은 차별대우는 일제 36년간 원칙적 기준이 되어 한국인은 일인에 비하여 명목상으로는 1/2, 실질적 가치로는 1/4정도의 보수 밖에 받지 못하였다. 한반도에서의 한일 두 민족간의 경제적 격차는 호당평균납세액의 비로도 나타나는데 한국인의 호당평균납세액의 40%에 불과한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1970).

1920년대 일제의 산미증식운동도 실제로는 일본내 식량부족을 한반도의 기아수출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한국인의 식량사정은 식량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악화되어 갔다. 1920년대 말의 쌀 생산량은 1910년대 초에 비하여 28%가 증산되었으나 일제에 의한 기아수출의 결과 1인당소비량은 오히려 35%가 감소(조선총독부, 1936)되니 초근본피와 만주로부터의 수입잡곡이 대체식량일 수 밖에 없었다. 1930년도 춘궁민 농가호수가 전국적으로 48.3%에 달한 것은 바로 일제에 의한 한국 농민의 참상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당시의 거지수와 화전민의 증가, 해외이주민의 증가 등이 모두 위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실이라 하겠다.

2.2. 윤봉길의사의 일생

윤봉길의사는 1908년 6월21일에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에서 윤황·김원상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우의였으며 봉길은 별명

이고, 아호를 매현이라 했다.

그의 일생은 25년간의 짧은 생애였으나 그가 민족사에 남긴 자취는 항일운동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의 관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그는 19세에서 23세까지 만 4년간 시랑리의 청년동지들과 농촌지도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애향, 애국의 농촌지도자가 일제의 수탈과 억압하에서 항일혁명가로의 변신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항일혁명가이기 이전에 그는 향토와 민족을 사랑한 농촌지도자였으며 시인이었으며 사상가였다.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으로부터 농가소득을 위한 부업양돈, 구황을 위한 고구마재배 등의 장려, 협동정신의 생필품 공동구관, 유휴지 활용을 통한 식수운동,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등으로 활동을 넓혀갔다. 이들 사업을 위해 월진회 조직, 마을청년들과 함께 추진하였다(매현윤봉길 의사기념사업회, 1982; 동아일보사, 1976; 임중빈, 1975).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관련문헌과 자료의 고찰

윤봉길의사가 소개된 문헌들은 대부분 홍코우공원의 의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가 향리에서 수년간 전개했던 농촌지도활동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오늘날의 농촌지도와 연계시켜서 그 의의를 학제적으로 고찰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들 문헌의 내용은 평가를 왜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의 저하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면에서도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출판 또는 개편하는 문헌의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겠고 나아가 오늘날의 농촌지도론적 시각에서도 재평가되

어야 할 것이다.

윤봉길의사가 소된 문헌 15권(김승학,; 유흥열, 1973; 매헌윤봉길의 사기념사업회, 1982;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박상준, 1975; 송남현, 1976; 신석호,; 예산군, 1982; 이선근, 1983; 이현종 외, 1982; 이희승 외, 1973; 일중도서개발위원회, 1983; 일중도서개발위원회, 1982; 임동빈, 1977; 임동빈, 1975)의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표 1>와 같이 나타났다. 이들 문헌 가운데 전기체의 문헌 및 윤봉길의사의 업적과 사상에 관한 고찰형식의 논고를 제외한 역사교재 및 사전유의 문헌에는 주로 홍코우공원의 의거만 소개되어 있고 일부의 문헌은 윤봉길의사가 망명 후에 상해에서 가졌던 공장직공과 채소상 등의 지역적 경력에 대하여는 지면을 할애한 반면 그가 향리에서 수년간 전개했던 농촌부흥운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특히 오늘날의 농촌개발운동 및 발전론과 연계시켜서 그 의의를 학제적으로 고찰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들 문헌 가운데 한권은 출생연도가 1899년으로 오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불충실한 일부 문헌의 내용은 독자로 하여금 윤봉길의사에 대한 인상이나 평가를 왜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홍코우공원 의거를 바람직하지 못한 항일운동방법으로 비판했던 시각도 일부 있었으며 윤봉길의사의 사회교육가적 면모가 널리 주지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의 체하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면에서도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출판 또는 개판하는 문헌의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겠고 나아가 오늘날의 발전론적 시각에서도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관련문헌의 내용분석

구분	출생지	수학과정	농촌부흥운동	망명후의 직업	홍코우공원의거
문헌수	11	8	11	6	15

3.2. 1920년대 시랑리의 실태와 농촌부흥운동의 참여자

3.2.1. 시랑리의 실태

시랑리는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속한다. 갈산과 해미 쪽에서 덕산시장에 이르는 도로변의 마을로 구한말과 일제하에서 보부상들의 왕래가 매우 빈번한 지역이었다.

시랑리의 당시 인구는 약 206명, 가구수 32호였고 주민들은 인접한 6개의 지역에 집촌들을 이루어 살고 있었으며 윤의사댁은 대로변의 주막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다. 당시 마을주민의 생업은, 주막거리의 5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업이었으나 영농규모가 극히 영세하였으며 농지의 약 40%는 당시 예산읍의 지주였던 김홍국의 소유였다.

농지소유, 규모등과 당시의 영농기술, 농외소득의 기회 등을 감안할 때 시랑리 주민의 대부분은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겠다. 시랑리에서는 자작과 소작을 합하여 평균영농규모가 약 8마지기(0.56정보)에 불과했다. 15마지기(1정보) 이상 경작한 농가는 4가구뿐이었는데 윤봉길의사댁(15마지기), 윤봉길의사의 백부 윤 경(20마지기), 김홍기(15마지기) 등이었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나은편에 속했다. 윤 경은 당시 이 지역의 진흥회장이었으며 윤봉길의사의 부친은 농지세납세자에 한하여 부여되던 면협의위원의 선거권을 소지하고 있었다(이선근, 1983. p.63).

〈표 2〉 1920년대 시랑리 주민의 직업별 현황

구 분	농 기				비 농 가				합계
	자작	자소작	순소작	농업 노동	주집	떡집	통집	침술*	
가구수	11	1	11	4	2	2	1	(1)	32
평균영농 규모(평)**	1,980	1,600	1,382						

* : 자작농으로 침술 겸업

** : 답면적, 밭면적 제외됨(당시의 시랑리에는 밭이 별로 없었다).

3.2.2. 농촌부흥운동의 참여자

당시로서 선구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인적자원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지도력 덕분이라 하겠다. 외부의 유학생이 아닌 순수한 농촌청년으로서 격변하는 시대상을 통찰하고 일제하에서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농민을 위해 농촌지도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으나 주로 한학을 수학했던 그가 애국계몽운동의 지도자가 된 사실은 1910년 전후의 애국계몽운동가들이 대부분 한학자들이었음을 상기해보면 수긍가는 일이다.

윤봉길의사가 한학에만 머물지 않고 다년간 폭넓은 독서에 힘쓴 것과 당시의 극빈한 시랑리에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동지들이 있었던 것이 농촌지도사업에 큰 도움이었다.

시랑리에는 윤순의, 윤신득, 윤세희 등 종형제와 윤세희, 정종갑, 정종호, 황종진, 이민덕 등의 지기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윤의사의 농촌지도사업에 동참하였다. 종제 윤신득은 백부 윤 경의 아들로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중동중학을 퇴학당한 민족주의자였다.

윤세희는 부흥원 대지를 마을에 내놓은 윤주봉의 아들로 당시 배재고보 출신이며 야학교육에 동참하였다. 정종갑은 공주 영명학교 출신이며 그의 동생 정종호는 당시 5년제 예산공립농업학교 재학생으로 민족주의자였으며 5학년때인 1931년에 학생운동문제로 퇴학을 당했다. 이들 형제는 1920년대 한국농촌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신문구독자였다. 황종진은 윤의사와 의형제간이었으며 윤의사택이 위치한 주막거리 출신으로 입시 경쟁률이 5 ~ 10 : 1이었던 당시의 예산공립농업학교를 1926년에 입학하여 1931년에 수석졸업한 수재였다. 이민혜는 유년기로부터 윤봉길의사와는 한문서당 동문이었으며 덕산보통학교를 함께 중퇴하고 오치서숙의 성주록선생 밑에서 함께 수학하고 윤의사, 정종갑형제, 황종진 등과 각골 독서회를 조직, 독서활동과 문맹퇴치운동에 동참했다.

3.3. 시랑리의 농촌부흥운동의 내용¹⁾

3.3.1. 문맹퇴치운동

윤의사의 농촌지도사업의 시발인 문맹퇴치운동은 그가 19세때 공동묘지에서 묘표를 뽑아가지고 와서 선고의 무덤을 찾아달라고 간청한 문맹청년을 만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그는 오치서숙을 떠나 독학하던 중에 김흥기, 이규남 등 마을 주민의 권유로 7,8명의 아동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야학으로 발전하였다. 인원이 늘어감에 따라 분반을 하여 정종갑과 윤세희택 사랑방도 이용하였고 2년째 가서는 30~40명까지 인원이 증가되어 진흥회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윤의사와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 동지들은 이 진흥회 사무실을 부흥원이라고 불렀다.

야학의 운영은 주로 윤의사가 정종갑, 윤세희 등과 함께하였다. 그들은 매일 저녁 칠판을 이용하여 한글을 깨우쳐주었으며 민족, 민주 및 실학적 사상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당시에 사용했던 교재로 윤의사 자필의 농민독본 중 2권과 3권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윤의사와 동지들의 철학과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시랑리의 청년들이 윤의사와 야학을 운영한 기간은 1926년에서 1930년 초까지 4년간인데 그 성과로서 광복 후 시랑리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문맹퇴치운동은 조선일보사의 문맹퇴치 운동이나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 보다 앞선 것으로 이들 간에 상호연관성은 없다하였다.

3.3.2. 월진회

월진회는 위친계가 발전한 모임으로 대외적으로 당시에 무난히 수용될 수 있는 시랑리회라고 칭하였는데 월진회는 정식으로 발족한 후의 인원

1) 월진회 임원들의 증언과 모현연보 참조.

이 고문 3명을 제외하고 34명에 달하여 당시 시량리의 청년들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월진회의 고문에는 윤의사의 종형인 윤순의와 15마지기를 자작하는 김흥기, 10마지기를 자작하며 김흥국의 마름인 이성래, 이사에 정종갑, 정종호 형제 그리고 회원에는 황종진, 황복해 형제, 방한세, 서득천, 이민석과 그의 딸인 이아망네 등이 있었으며 윤의사의 동생인 윤성의, 윤남의도 회원이었다.

윤의사가 월진회 회원들과 함께 벌였던 농촌지도사업으로는 양돈계, 고구마재배, 공동식수, 운동장조성과 체육활동, 소비조합운동 등이 있는데 윤의사는 월진회의 조직과 더불어 시량리의 모든 인적자원을 조직적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동원했던 것이다. 월진회의 사업을 위하여 회원들이 모금한 자금은 회원당 월 10~20전으로 대부분 회원들이 땀감을 팔아서 마련했다.

3.3.2.1. 양돈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회원 중에서 매월 1명씩 추천하여 자돈을 입식시켰다. 입식시킨 자돈은 1년간 겨와 뜨물로 키워서 시판하였다. 당시 자돈의 가격은 약 3원 50전이었으며 품종은 체구가 작은 중국계통의 흑색재래종이었다.

3.3.2.2. 고구마재배

구황작물로서 마을주민에게 고구마재배를 권장하였다. 당시에는 고구마의 재배기술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황종진, 정종호 등 예산농업학교 학생들의 재배기술을 지도하였다. 당시 묘상은 농가의 방안에 짚을 깔고 그 위에 고구마를 올려놓은 다음 물을 뿌려주면서 발아시키는 것이었다. 발면적이 협소하여 당시 주종을 이룬 밭작물인 콩, 보리, 감자

및 채소류 이외에 별도로 고구마를 식재할 여분이 없었으므로 마을 주변을 개간하여 고구마를 재배했다.

3.2.2.3. 소비조합

시랑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덕산시장이나 예산시장으로부터 각자 구입해다 쓰고 있었다.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량씩 구입하는 탓으로 물건이 갑자기 부족되는 경우 교통편이 좋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결하고 동시에 염가로 구입하기 위해 윤의사는 석유, 성냥, 양젓물, 실, 바늘 등의 생활필수품을 덕산시장과 예산시장으로부터 다량으로 공동구입하여 그의 집마다 비축해 놓고 월진회 회원과 마을주민에게 박리로 판매하고 기금을 적립하였다. 처음 구매대금은 월진회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조합운동은 바로 협동조합운동의 초기단계로 보아야할 것이다.

3.3.2.4. 수암체육회

윤봉길의사는 천성으로 운동을 즐겼으며 그의 용력 또한 타고난 것이었다. 그는 자가소유인 진장내 천변의 밤나무골 일부를 개간하여 작은 운동장을 조성했는데 수암체육회라는 명칭은 밤나무골이 수암산 기슭에 위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월진회 회원들이 공동작업으로 잡목과 바위를 제거한 다음 평탄작업을 하면서 개울의 모래도 퍼다 붓고 하여 씨름과 격구 등을 즐겼다.

3.3.2.5. 공동식수

월진회 회원들은 정종갑소유의 하천부지에 공동작업으로 미류나무를 심는 등 식수운동을 펴기도 했다. 공동작업을 통합 회원간의 유대를 강

화하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속성수를 생산하고 마을의 풍경지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위의 농촌지도 사업가운데 양돈, 고구마재배, 식목 등 농업기술은 예산 공립농업학교 재학생인 황종진(1926년 입학, 1931년 졸업)의 기여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농민독본의 교육목표

시량리 청년들이 벌였던 농촌부흥운동에 관한 현존하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홍코우공원의거 후에 시량리에 가해졌던 일제의 심한 검색과 핍박 때문에 윤의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사람들이 관련자료들을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농민독본 2, 3권과 서한, 한시, 일기 등과 월진회취지서, 월진회 금언 및 월진회가 등이 보존되어 있어서 직접 그의 사상을 대할 수 있다.

야학의 교재로 사용했던 농민독본에 실려 있는 내용과 월진회취지서 및 농촌지도사업들을 중심으로 윤의사와 그 동지들의 사상과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상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으로부터 농민독본을 통하여 윤의사가 의도했던 교육목표가 자명해진다. 이 교육목표야말로 그와 청년동지들의 교육관, 사회관, 산업관, 민족관, 등 의 가치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기적인 개인의 자유를 뛰어넘어 집단우위의 자유사상, 계층과 직업에 차별없는 인권에 대한 평등사상, 국력의 기초가 농본적 경제에 있다고 역설한 민족의 자주독립사상 및 인화와 공리적 협동을 토대로 애향애국의 농본적 이상향을 지향하는 주장으로서 농민독본에 포괄적으로 담겨진 것이며 이러한 사상은 월진회취지서와 금언 및 월진회가에 인간성 회복, 상조상에, 자자자급의 실현, 근검저축 및 개척 등의 주장으로 집약되어 있다.²⁾

〈표 3〉 농민독본의 내용과 교육목표

2권			3권		
과	주제	교육목표	과	주제	교육목표
제1과	인사투	인화	제1과	농민과 노동자	평등사상, 공리사상
제2과	격인	교양	제2과	양반과 농민	평등사상
제3과	편지	인화	제3과	자유	집단 우위의 자유사상
제4과	영웅의 야심	성취동기 유발	제4과	농민	농본주의
제5과	낙심말라	성취동기 유발	제5과	소금과 사탕	과학관, 유통경제관
제6과	백두산	애향, 애국, 자주독립	제6과	농민과 공동정신	유통경제관, 협동정신, 애향, 애국, 자주독립정신
제7과	조선지도	애향, 애국, 자주독립	제7과	링컨의 고학	성취동기유발
제8과	기경한 현대	사회적응			

오늘날의 지역사회개발론에서 인간과 지역사회와의 계획에 있어서 계획자는 반드시 이상향을 추구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Aronovic, 1956: 45), 윤의사와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벌였던 시량리 청년들이야말로 유토피아적 지역사회 계획자들이었으며 나아가서 애향, 애국한 농촌지도자의 귀감이라 판단된다.

3.5. 시량리의 농촌부흥운동의 성격

1920년대 후반기에 농촌부흥운동을 벌였던 윤봉길의사의 사상과 이조 후기의 실학사상 및 근대의 농촌개발사업을 비교하여 보면 시대적으로 상이한 이들 발전론 간에 사상적 뿌리가 하나의 민족문화적 토양속에 공

2) 윤봉길, 농민독본, 1927을 임중빈, 간추의열윤봉길, (인물연구소, 1975), 124~143.

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학사상의 특색이 민족주체적 자주적 역사의식과 국민주의의 표방, 계급의식의 불식, 산업경제진흥, 국리민복의 증진을 표방한 것이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강조된 정신적 토대가 근검, 자조, 협동, 자립 등인 것으로 보아 두개의 발전론이 윤봉길의사의 농촌부흥운동을 전후하여 시대적으로는 그 격차가 크다고 하겠으나 그 근본적 이념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Ness, 1980: 509-513).

윤봉길의사가, 참담했던 1920년대 한국농촌에서, 식민주의, 자원수탈, 경제적 지배, 자유의 제한, 교육의 편재, 자존심의 결여, 낮은 생활수준 등의 상호연관성(Todaro, 1977:390)을 통찰하지 않았다면 농촌부흥운동의 초점을 이들 장애요인의 제거에 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윤봉길의사의 농촌부흥운동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결국 현대의 발전론자들의 시각과도 일치한다 하겠는데 그는 자유 평등의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단계적으로 농촌의 무지와 빈곤을 타파하기 위하여 농민의 긍지와 성취동기를 깨우치는 사회교육 및 협동적 경제운동을 벌였으며 그의 투철한 애향심과 애국심이 농촌부흥운동의 가장 큰 추진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봉길의사의 사상구현을 위한 농촌운동의 실천사례를 내용별로 고찰해보면 실학자들의 농업기술혁신, 과학영농, 영농교육 및 상공업 진흥 등의 주장과 또한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에서 중점적으로 시도되어온 여러 가지 사업들과도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윤봉길의사의 농촌부흥운동과 농촌새마을운동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고 하겠는데 특히 새마을 운동에서 소득증대사업이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것은 농촌부흥운동에서의 부업양돈, 고무재배, 소비조합운동 등과 같은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농촌부흥운동과 농촌새마을운동의 비교

농촌부흥운동	농촌새마을운동
야학	새마을교육
독서회	마을문고
월진회	마을개발위원회, 새마을 청소년회
부흥원	마을회관
양돈계	부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고구마재배	식량증산
공동식수	공동작업
수암체육회	새마을체육회
소비조합	새마을금고 구관장

지역사회개발론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논지는 자조를 통한 협동과 조화이며 지역사회개발의 지도자는 실천적 운동의 주창자로서 부락의 제활동을 다목적, 전문적으로 유도, 조정해야 한다(Hollnsteiner, 1979:404-4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윤봉길의사는 주변의 모든 자원 특히 인적자원을 십분 동원할 수 있었던 유능한 다목적 농촌지도자로서 사회교육자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자인 동시에 실천가였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경제부흥운동을 벌였듯이 윤봉길의사도 당시 한국농촌에서 가능했던 방법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운동을 추진했으며 이는 오늘날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개념인 것이다(Schmacher, 1973: 5). 또한 봉건적 색채가 강했던 1920년대의 한국농촌에서 남녀공학의 야학을 운영하고 월진회 회원에 여자회원을 포함시켰던 사실에서도 또한 교육과 훈련이 발전의 노력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라는 관점에서(World Bank, 1979: 2) 윤봉길의사의 혜안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윤봉길의사의 농촌부흥운동을 오늘날의 종합개발사업(CBIRD)

과 비교하여 볼 때 규모에 있어서는 후자가 보다 광역적이라는 점과 행정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추진하는 점(Brandt, 1978: 12)에서 대별되며 새마을운동과 비교할 때도 같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일제하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윤봉길의사의 농촌부흥운동과 행정기관과의 연계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의 수행에 있어서 주민주도적으로 추진되었던 점은 새마을운동 및 CBIRD와의 사이에 일치하는 점이라고 보여진다.

4. 결 론

일제하 한국농촌과 시랑리의 실태에 관한 문헌과 월진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윤봉길의사와 그 동지들의 농촌지도사업에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윤의사와 그 동지들의 철학과 사상은 농민독본의 교육목표로서 자유, 평등, 자주독립, 개혁, 협이며 이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애향, 애국에 초점지어진다.

나. 1920년대 시랑리주민의 2/3 이상이 절대빈곤상태에 있었으나 주민가운데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높은 젊은 「엘리트」들이 있었으며 그들 모두가 윤의사의 농촌지도사업에 동참하였다.

다. 윤의사의 농촌지도사업은 문맹퇴치와 정신계몽, 양돈계의 소득증대, 생필품공동구관의 소비조합운동 및 체육회의 체력 등이 있으며 이들 운동을 월진회를 중심으로 주민을 동원하였다.

라. 윤의사를 포함한 월진회 회원들의 사상은 실학사상과 유사하고 그 구현방안은 오늘날의 농촌지도사업 및 새마을운동 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마. 시랑리 청년들과 같은 주민주도적이고 자조, 자립, 협동의 능동적

행동철학을 가진 지도자상이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농촌지도자의 자질이라 하겠다.

■ 참고 문헌 ■

- 국사편찬위원회. (1972). *일제침략하 한국삼십육년사*. 264.
- 김승학(편). (1965).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 동아일보사. (1976). *개항 100년 연표자료집*.
-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1982). *매헌연보*.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의상와 열사들*. 민족운동총서 제5집.
- 박상준. (1975). *윤봉길의사의 농민운동연구*. 경희대학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송남헌. (1976). *윤봉길의사의 농민·민족관*, *농민문화* 6. 농민문화사.
- 예산의 열. (1982). 예산군.
- 유홍열(편). (1973). *근대의 인물*. 한국인물대계 7. 박우사.
- 이선근. (1983). *대한국사* 10. 신태양사. 63.
- 이현중 외(편). (1982). *근대사*. *컬러판 한국사* 5. 신홍서관.
- 이희승 외(편). (1973).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부.
- 일중도서개발위원회. (1983). *중학교국사 하*. 문교부.
- 임동빈. (1977.9). *윤봉길의사와 농촌개초운동*. *월간대활*. 크리스찬아카데미재단본부.
- 임중빈. (1975). *간추의열 윤봉길*. 인물연구소. 124~143.
- 조동걸. (1976).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헌길사. 102.
- Aronovic Carol. (1956). *Community Building*, New York. Doubleday & Co. Inc. 45.
- Brandt Vincent S, R. et. al. (1978). *Planning From The Bottom Up*, ICED. 12.
- Hollnsteiner M. R. (1979). *Mobilizing the Rural Poor Through Community Organization*, *Philippine Studies*, 404~405.
- Ness Gayl D. et al. (1980). *Saemaul Spirit*, Reports of International Research Seminar on the Saemaul Movement. Seoul.
- Schmacher E. F. (1973). *Small is Beautiful*, New York, Harper & Row. 5.
- Suzuki Takeo (1942). *Chosen no Keizai*. Takyō.
- Todaro M. P. (1977). *Economics For A Developing World*, U. K. Longman Group

Ltd. 390.

World Bank. (1979). Recognizing the “Invisible” Woman in Development. 2.

논문투고일: 2009. 2. 27

1차수정일: 2009. 3. 16

2차수정일: 2009. 5. 21

게재확정일: 2009. 5. 29